

확 바뀐 '3세대 K5' 시승기

말로 창문 열고 히터 켜고... 잘 달리고 더 똑똑해졌다

먹잇감 노리는 호랑이 얼굴의 외양 파격적 역동성 표현
음성 인식·공기 청정·위치 공유·카투홈 등 첨단기술 탑재
돌출형 스틱 변속기 사라지고 다이얼 타입 전자식으로

23일 오전 11시 기아차 광주1공장, K시리즈 돌풍을 선도하고 있는 '3세대 K5'와 처음 만났다. 첫 인상은 "잘 빠졌네"였다. 지난 2015년 7월 2세대 출시 이후 4년만에 출시되는 풀체인지(완전 변경) 모델이다. '디자인 끝판왕'이라 불릴 만큼 파격적인 외관을 갖췄다.

기아차 상징인 '호랑이 코' (tiger nose) 라디에이터 그릴은 먹잇감을 노리는 호랑이가 낚작 엮드린 듯 크게 넓어지고 헤드램프와의 경계도 없었다. 거칠게 없는 당당함과 강렬함을 뽐내었다.

그릴의 패턴은 정교해졌다. 상어꼬질을 연상케할 정도로 거칠고 날카로운 모습이지만, 부드러운 촉감을 갖춘 '사프 스킨' 직물을 모티브로 삼아 파격적 역동성을 표현했다. 헤드램프와 미팅한 사각형이나 삼각형 모양이 아닌, 두 갈래로 쪼갠 형태로 디자인된 신선한 느낌을 줬다.

강렬한 느낌의 전면부와는 달리 뒷모습은 안정적이었다. 리어콕비림프는 일체형으로 연결됐고, 좌우 램프를 잇는 그래픽 바는 간격을 두고 점차 짧아지는 형태의 점등 패턴으로 설계된 점이 눈에 띄었다.

시승 모델은 인터스텔라그레이 색상의 'K5 가솔린 1.6터보' 풀옵션 차량이었다. 1.6터보 모델엔 T-GDi 엔진에 8단 자동변속기를 탑재했다. 최고출력 180마력(ps), 최대토크 27.0(kgf·m)이다.

운전석에 앉아 시동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변속기에 손을 얹었는데 "어라 변속기가 없네", 돌출형 스틱 형태의 변속기는 사라지고, 다이얼 타입의 전자식 변속기(SBW)로 바뀌었다. 주행(D)과 후진(R), 중립(N) 등 운행 명령을 다이얼을 실행했다. 주차는 'P' 버튼을 눌러서 한다.

센터패시아 상단에는 직사각형 모양의 돌출형 10.25인치 내비게이션이 자리했다. 특히 내비게이션을 운전석 방향으로 비스듬히 붙여 주행 중 화면을 보는데 편리하도록 설계했다.

스티어링휠 안쪽에는 12.3인치에 이르는 디지털 클러스터를 넣어 역시 시

인성을 높였다.

다이얼을 'D'로 돌리고 가속페달을 슬며시 밟았다. 기아차 광주공장 정문을 부드럽게 지나 서구 광천동과 유촌동 등 시내주행을 거쳐 제2순환 고속도로를 질주했다. 광주대 너머 칠구재터널을 지난 뒤 화순 도곡온천까지, 왕복 50km를 달렸다.

핸들링은 저속에서는 부드러웠고, 고속에서는 단단하고 묵직했다.

2순환도로에 진입해 주행모드를 스포츠 모드로 전환하고 가속페달을 힘껏 주자 묵직한 엔진음을 내며 속도감이 전해졌다.

주변 차량 운행이 뜸해지자 스마트크루즈컨트롤(SCC)을 켜다. 시속 80km 구간에서 무리없이 반자동주행 기능을 수행했다. K5는 내비게이션 기반 SCC를 적용했다. '레벨 2.5' 수준의 자율주행과 내비게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안전 구간·곡선로 등의 정보를 받아 자동으로 차량의 속도를 제어한다.

동급 최초 적용한 음성인식 차량제어 시스템을 활성화한 후 다양한 음성명령을 실행했다.

"창문을 열어줘"라고 말하자 차량이 명령을 복장한 뒤 창문을 열었다. "히터 틀어줘", "열선 켜줘" 등 사람과 대화하듯 얘기하자 운전자의 요구에 따라 히터, 운전석 시트 열선 등을 제어했다.

돌아오는 길에 칠구재터널 구간에서 '미세먼지 센서'를 작동했다. 기계음과 함께 실내 미세먼지는 'Good(좋음)' 상태를 유지했다.

공기청정 시스템은 실내 공기를 모니터링해 4단계(좋음·보통·나쁨·매우 나쁨)로 표시하고, 고성능 콤포 필터를 통해 운전자의 별도 조작 없이 정화한다.

K5에 적용된 원격 스마트 주차보조는 시승한 이들에게 재미를 선사했다. 운전자가 타고 내리기 어려운 비좁은 주차공간에서 맹활약했다.

차량에 타지 않고도 스마트폰을 조작해 주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면허를 갖지 않은 초보 운전자에게는 더 없는 보너스로 보였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기아차 '3세대 K5'가 '디자인 끝판왕'이라 불릴만큼 파격적이고 강렬한 모습으로 돌아왔다. 23일 '3세대 K5'가 화순 도곡온천 주변 도로를 달리고 있다. <기아차 제공>

조선대병원 '토요타 자선 병원 콘서트'

9개 도시 순회...광주는 내년 2월6일

한국토요타자동차는 인천 인하대학교 병원을 시작으로 전국 순회 '토요타 자선 병원 콘서트'를 열고 있다.

이번 콘서트는 내년 2월 초까지 서울·부산·대전·광주 등 전국 9개 도시, 12개 병원에서 막을 올린다.

광주 콘서트는 내년 2월6일 오후 2시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열린다.

지난 2003년부터 17년째 이어오고 있는 '토요타 자선 병원 콘서트'는 매년 연말연시 전국 주요 도시의 병원을 순회하며 환자 및 가족들을 위로하는 무료 콘서트로 매년 '토요타 클래식'을 통해 얻은

수익금 전액과 한국토요타자동차의 기부금이 그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KBS교향악단 체임버가 소프라노, 금관 오중주, 타악기 앙상블 등 다채로운 곡을 연주하며, 개그맨 송준근과 정범균이 사회를 맡아 웃음을 선사할 예정이다.

타케무라 노부유키 한국토요타자동차 사장은 "토요타 자선 병원 콘서트가 환자 및 가족분들에게 작게나마 위로와 기쁨을 드리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병마와 싸우시는 분들의 빠른 쾌유를 빈다"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

아이들이 디자인한 차의 모습은?

현대차 내년 2월16일까지 서울서 키즈 모터쇼

아이들의 상상력을 실제 자동차로 제작해 전시하는 이색 모터쇼가 열리고 있다. '길거리 동물 케어 자동차', '두둥실 풍선 자동차', '성격 개조 자동차', '납작 자동차'...

23일 현대자동차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내년 2월16일까지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 살림터 1층에서 '제4회 브릴리언트 키즈 모터쇼'가 진행 중이다.

브릴리언트 키즈 모터쇼는 어린이들이 상상력으로 그린 자동차를 실제 자동차 모형으로 제작해 관람객이 직접 타고 체험할 수 있도록 전시하는 행사다.

현대차는 지난 7월31일부터 9월9일까지

약 5주간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담은 자동차 그림 1만100여 점을 접수해 150점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이 중 ▲길거리 동물 케어 자동차 ▲두둥실 풍선 자동차 ▲시티투어차 ▲소리 에너지 자동차 ▲성격 개조 자동차 ▲납작 자동차 등 총 6종을 특별상으로 뽑아 실물과 같은 모형 자동차로 제작, 전시하고 있다.

특별상을 받은 '길거리 동물 케어 자동차'는 유기견과 길고양이를 돌보기 위해 상한 미래 자동차로 아이들의 따뜻한 마음을 엿볼 수 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아시고 전화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단(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상
담
전
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